

자/기/소/개/서

관리번호	1	
------	---	--

1. 가르치는 사람에서 함께 배우는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스스로 꽤 괜찮은 교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담임으로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자료를 만들고 전국의 과학 교사들과 공유하였으며, 그 노력은 교육정보공유운동 교육부장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고 지도하는 일에도 열성을 다하여, 과학탐구대회와 탐구올림픽을 함께 준비하며 두 차례 교육장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00고등학교로 옮긴 뒤, 저는 처음으로 벽 앞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정성껏 준비한 수업이었지만, 교실 안에는 설명하는 교사와 무기력한 학생들만 남아 있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아이들은 배우려 하지 않을까?'라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해야 할 사람은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경남에서는 배움중심수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다시 수업을 돌아보았습니다.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이 받아쓰는 방식에서, 학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수업을 바꾸었고, 아이들을 보는 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받아 적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바뀌자, 아이들이 살아났고, 교실을 넘어 학교 전체를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이 저를 행복학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희망은 지금까지 해온 교육 활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교실 변화를 넘어 학교혁신의 길로

▶행복학교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및 안착 지원

2014년 『경남형 00학교 추진단』을 시작으로, 저는 학교혁신의 가치를 현장에 뿌리내리는 일을 꾸준히 함께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년간 00교육청 『0000 지원센터』에 파견되어 도내 행복학교의 선정 심사와 평가, 컨설팅 업무를 맡으며 학교혁신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과정임을 깊이 체감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학교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여러 학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학교마다 처한 현실은 달랐지만,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학교도 있었지만, 구성원들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학교 선정 심사위원과 중간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행복학교 정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했던 경험은 2015년 창원 지역 교사들과 함께 0000연구회를 창립하고 2년간 대표를 맡았던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행복학교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참여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저는 교육정책 역시 현장을 떠나서는 완성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0000 미래학교 체제구현팀』(2017), 『경남교육정책 00위원』(2023~2025)활동을 통해 경남교육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TF』,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TF』,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협의회』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한 학교업무분장표준안 마련,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기능 강화 방안 수립 등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또한 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합의를 만들어 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지원동기 : 물음에서 실천으로

저는 2014년, 행복학교가 정책으로 구체화되던 순간부터 『경남형 00학교 추진단』 참여, 00교육청 0000 지원센터 파견 근무, 행복학교 컨설턴트 활동까지 그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진정으로 배우고 있는가?’ ‘교사들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학교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양덕중학교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일은 그 질문들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응답입니다. 양덕중학교는 2018년부터 행복학교를 운영하며 학생자치활동, 전문적학습공동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등 행복학교의 핵심 가치를 착실히 쌓아왔습니다. 학년부 중심의 생활교육과 프로젝트 운영,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쌓아올린 소중한 교육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행복학교를 외부에서 지원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행복학교 공유 기반 약화, 혁신의 관례화, 구성원들의 소진 등 현재 양덕중학교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제가 행복학교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깊이 고민해 온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고민을 현장 안에서 직접 풀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교직원과 학부모가 오랜 시간 함께 일궈온 이 학교에서, 도약의 씨앗을 심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4. 실천 약속 : 함께 가꾸고, 모두가 빛나는 양덕중학교

여러 활동과 현장의 경험을 통해, 제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도 조금씩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학교라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학교입니다. 저는 특별한 성과나 눈에 띄는 변화보다, 학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가치들이 하루하루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을 앞세우기보다, 지금까지 학교가 소중히 쌓아온 토대 위에서 한 걸음씩 단단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배움이 살아있는 교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의 본질은 온전히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배움이 있는 수업이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지치기보다 아이들의 눈빛과 배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TF』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활동 중심의 업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없애고 행정업무를 재구조화 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성장하는 학교

학교에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도 있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모습과 속도를 가진 모든 학생이 자신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재능 있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때로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산을 오르며 나누는 작은 일상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워 왔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교사 역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학교의 힘은 교사의 희생이 아니라 성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빛나는 학교를 일궈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려면, 스스로 존중받고 자신의 의사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는 행복학교의 시작과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학교의 변화와 성장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먼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온 행복나눔학교의 소중한 토대 위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와 함께 양덕중학교의 다음 걸음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다 다르게!

함께 가꾸고 모두가 빛나는 양덕중학교! 이것이 제가 양덕중학교 구성원들과 견고 싶은 길입니다.